

므로 봄베이에 이르는 沿線에서 아우랑가발과 나시크의 兩窟과 봄베이를 중심으로 에레판타, 칸헤리, 마자 카-라의 순서로 이름난 석굴만을 찾아다녔습니다. 이들은 모두 岩山中腹以上에 四·五個에서 百이 넘는 大小의 塔窟과 僧院窟을 연속시켰는데 이들이 모두 古代都市와 그들을 연결하던 貿易路와 깊은 관련을 맺고 造營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에레판타만이 힌두教窟인 바 봄베이港外의 小島에 있어 규모와 조각에서 代表作이 될만 하였으며 나시크와 바자의 兩窟은 紀元前後의 작품이어서 初期樣式을 보여주었습니다. 塔窟로서 감명깊었던 것은 카-라窟이었는데 入口의 彫飾이나 柱頭의 動物像들은 그것만으로서도 모두 優品이었음니다. 이곳窟內中央에 泰安된 圓塔頂上에는 당초의 土造傘蓋가 보존되어 있어서 天井과 窟戶의 木造樣式과 더불어 注目되었음니다. 印度石窟이 在來의 木造建築을 忠實하게 모방하면서 出發한 點은 우리나라 石塔이 또한 木塔을 模範에서 發生한 事情과 서로 닮았다고 하겠음니다. 約十日間 이들 石窟을 찾아다녔을 때는 氣溫이 上昇하고 있어 登山하기에 힘이 들기도 하였으나 窟內는 모두 서늘하여서 이같은 風土에서 石窟이 流行한 까닭도 짐작이 되었음니다. 多幸히 이들 石窟調査에는 考古局職員과 同行이 되어서 큰 困難은 없었음니다.

三月九日 南印을 向하여 봄베이를 떠났음니다. 車中에서 밤을 새우고 다음날 이른 아침에 中印의 雄都인 하이드라바드에 이르러 하루 쉬어가기로 하였음니다. 이곳에도 博物館과 回教建築物가 있어 돌아보았사온데 마침 日요일이어서 商街는 문을 닫고 있었으나 힌두教의 祭日인 듯 男子들이 머리와 원뿔에 靑紅의 물감을 드리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모습은 奇異하였음니다.

三月十一日 아침 七時 버스로 다시 南下하여 크리슈나大河를 건너 午後四時경에 나가루추나판다에 이르렀음니다. 이곳은 紀元直後부터 七、八世紀間 南印佛敎의 中心이어서 寺塔이 많기로 유명한데 地名은 高僧인 龍樹菩薩에서 由來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완전히 廢墟로 化하였으며 더우기 進行中인 大規模의 塹工事が 完成되는 二、三年 뒤에는 水中에 잠겨버린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작은 博物館과 遊牧民이 小數 남아 있을 뿐 적막한 內陸의 故都이었음니다. 이곳 博物館長이 舍宅의 방하나를 비어주었기에 다행이었사온데 이곳에서의 二泊은 이번 여행을 통하여 가장 괴로운 고비가 되었음니다. 해가 지면서부터 旋風이 일어나 요란한 소리를 내는데 무덤기는 비할바 없어 침대 옆에 물통을 놓고 밤새도록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새웠음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중요한 寺塔址가 散在하고 있으며 일찍이 大塔을 장엄하였던 彫刻石도 수습되어 있어 印度美術史上이

를 만난 곳입니다.

當局은 數年來 塹工事와 併行하여 이같은 遺跡과 遺物을 굴발하여 왔으며 그중 重要한 一部를 山頂에 옮겨 놓았음니다. 그리하여 新築된 박물관을 비롯하여 移置된 塔殿址들을 모두 돌아 보았는데 이와 같은 收拾策이나마 마련된 것은 감명깊은 일이 있었음니다. 멀지 않아 이곳 新博物館은 湖水 속에 孤立된다고 하는 바 이곳 一帶는 印度의 새로운 觀光地로 登場할 것이 틀림 없을 것임니다. 水中에 잠기기에 앞서서 이곳을 찾아온 나의 幸運을 博物館長은 거듭 말하여주었으며 完工後에 다시 찾아 오라는 부탁을 받기도 하였음니다.

三月十三日 아침일찍 이곳을 떠나 버스便으로 군통을 경유하여 夕陽에 아마라바티에 당도하였음니다. 이곳 또한 크리슈나河 下流에 자리잡은 古都로서 일찌기 佛敎가 융성하던 땅인데 특히 大塔址에서 발굴된 紀元後 二、三世紀의 우수한 조각으로 이름난 곳이기도 합니다. 翌日은 이곳 博物館長의 인도로서 塔址와 그 옆의 작은 陳列室을 보았으며 또 發掘中인 城址를 찾기도 하였음니다. 이 날 午後이 곳을 떠나 군통을 經由하여 비자야와다에서—칼자타—마드라스 急行車로 三月十五日 아침에 마드라스에 이르렀음니다. 이곳은 印度 四大都市의 하나로서 이번 여행의 終點이기도 합니다. 海岸에 건설된 이 都市는 樹木이 울창하여 아름답습니다. 그리하여 十八日에 이르는 三日間 주로 博物館을 찾아서 彫刻室 그중에서도 이곳에 옮겨진 아마라바티大塔의 彫刻을 주목하였으며 하루는 考古局의 안내로서 남쪽의 잔지푸람과 마하파리푸람을 찾아 巨大한 印度敎寺院과 石窟과 磨崖彫刻 등을 볼 수 있었음니다. 이 두 곳의 踏查로써 印度여행의 스케줄이 모두 끝났음니다. 夕陽길은 海岸을 따라 北上하는 車中에서 一月以來의 艱難의 結果가 있었다고 自信하면서 만족과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었음니다(四月十五日)

南大門通信(完)

金正基

南大門重修工事は 木部組立工事が 四月十三日에 完了되고 屋蓋工事は 申榮勲氏의 專任監督下에 趙元濟氏가 都給을 맡아 三月七日부터 四月五日 사이에 完

了하였다. 丹靑施工은 林泉監督官의 專任下에 鐵道靑色 株式會社가 맡았으며 四月七日부터 五月十日 사이에 完了하였고 그 밖의 周邊環境整理와 附隨的 架構物의 除去作業은 適宜로 施行되어 마침내 五月 十日에 모든 工事를 끝마쳤다. 竣工式은 서울市長 權로 五月 十四日 午後二時에 舉行할 豫定이며 式場整備工事が 十三日午前中으로 完了되었다. 竣工式에는 國家再建最高會議議長閣下를 비롯하여 政府要員, 學識經驗者 및 言論界, 外交使節團等 諸人士들을 招待하여 舉行될 것이라 한다.

全工事を 通하여 學術資料가 될 수 있는 墨書銘이 있는 古木材를 비롯하여 樣式이나 丹靑이 重要的인 古部材와 古瓦 등은 同門 上層 마루 위에 陳列保管하고 있다.

## 鴨形土器 二例

秦 弘 燮

慶北 玄風地方出土라고 傳하는 鴨形土器 二點이 慶北大學校 博物館에 保管되어 있다. 從來에 鴨形土器의 發見例는 數例있지만 이와 같이 優美한 例는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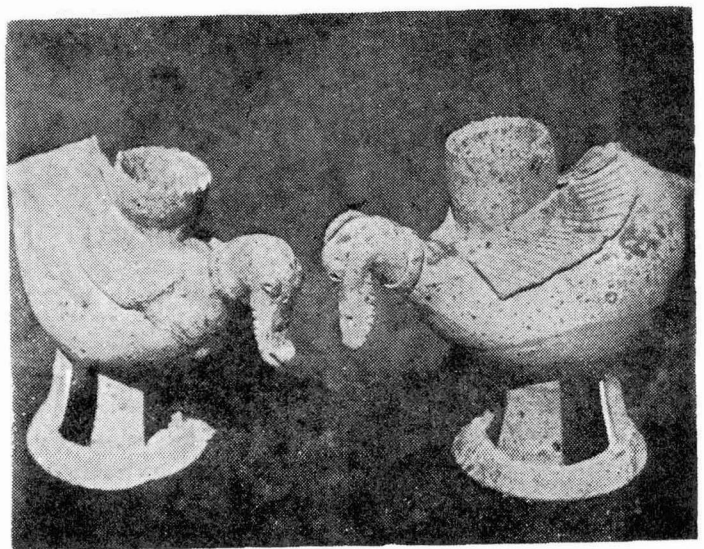
높직한 高臺위에 胴體가 設혀 있어 마치 臺가 발의 行세를 하고 있는 點이나 꼬리를 잘라버린 點이나 背面即 上部에 筒形이 달려있는 點等은 모두 他例와 같으나 細心한 刀法과 寫實的인 表現에 힘쓰고 있다.

高臺에는 縱으로 길고 시원한 透孔이 四個 뚫려 있고 그 위의 胴體는 若干머리를 숙인 姿勢로 놓여 있어 마치 水中의 먹이를 찾고 있는 듯하다. 胴體는 매우 살이 찢으며 內部空筒을 이루었다. 꼬리는 大膽하게 잘라서 胴體와 通하게 하였으며 등에 筒이 달려 있는데 한 마리는 圓筒形이고 다른 한 마리는 杯形인데 口邊은 모두 툭날같이 만들었다. 이 筒形 左右에는 두 날개를 別途로 만들어 붙였는데 이러한 例는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特異한 表現이라 하겠다. 두 날개에는 모두 平行陰刻細線이 있어 깃을 나타내고 있다. 목에는 고리가 걸려 있는데 한쪽은 납작하고 한

쪽은 둥글다. 날개를 따로 붙인 點과 아울러 頭部의 表現은 가장 印象의 이다. 끝지마한 눈은 水中의 먹이를 찾는 形

容이며 넉적하고 긴 兩側에는 툭니같이 되어 있어 多少 誇張된 感도 있으나 妙한 表現이다. 입 위의 코구멍도 매우 愛嬌가 있어 보인다. 높이 一六·五cm

와 一五·五cm의 이 土器는 表面에 自然 釉가 보이고 燒成도 매우 堅固하다. 他에 遺例가 없는 優雅 豊麗한 傑作이라 하겠다. 出土地가 玄風地方이라고 傳할 뿐 確實한 地點이나 出土狀態 伴出遺物을 一切 알 수 없음은 遺憾된 일이다.



## 白磁貞壽阿只氏胎缸

崔 淳 雨

지난 몇 해 동안에 서울 周邊地區에서 大理石胎誌石을 伴出하는 李朝 初期白磁의 王室胎缸이 연이어 發見되어서 國立博物館, 梨花女大博物館,